



1



- 1 먹거리 천국으로 유명한 스린 야시장
- 2 타이베이 중앙역내 테이 크아웃 초밥집
- 3 스린 야시장 지하음식점



이 POINT

어디를 가도 맛집

누군가 입맛을 잃었다면 타이베이에 가보라. 이 도시를 하나의 형용사로 표현한다면 '맛있다'가 정답일 것이다. 밥, 면, 빵, 고기, 채소, 차 중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골라도 결론은 타이베이다. 어느 길거리에서 만두를 사도 육즙이 줄줄 흐르고, 목말라서 버블티를 사면 한국 기준 점보 사이즈가 대만에서는 라지 사이즈로 나온다. 그야말로 식도락의 천국이다.

고기 위주 음식 중 대표 메뉴로는 우육면이 꼽힌다. 우육면 제조법은 가게마다 천차만별이다. 사용하는 면의 종류만도 얇은 면, 칼골수처럼 두꺼운 면, 폭이 넓은 도삭면 등 다양하다. 대부분 면을 직접 반죽한다. 뒷골목 가게에선 푸짐한 고기와 남기기가 송구할 정도로 진한 국물을 먹을 수 있다. 만약 어떤 가게를 가도 입에 맞는 우육면이 없다면 실망하지 말고 편의점에 들어가 보자. 실제 고기가 들어있고, 취향 불문 누구에게나 맛있는 다양한 컵 우육면이 쌓여있다.

채식주의자도 대만에서는 선택지가 많다. 대만 전체 인구 중 13% 이상이 완전한 채식을 하고 있고, 계란과 유제품을 먹는 페스토 베지테리언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채식주의자다. 도교와 불교의 영향 때문이다. 그만큼 식당에서 채식 메뉴를 찾기 쉬운데, 참깨소스와 채소로 만드는 비빔면인 마장면이 대표적이다. 만둣가게를 가도 야채 만두가 없는 집은 드물다.

02 POINT

무료 관광지가 많다

타이베이의 무료 관광지들은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 중정기념관은 장제스의 본명인 장중정(蔣中正)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그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지어졌다. 본당 건물의 높이가 70m에 이르고 계단은 장제스 서거 당시 나이와 같은 89개다. 건물이 중국 본토를 바라보고 있는데 장제스의 대륙 수복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내부의 장제스 청동상은 높이



3



타이베이에 가야 할 5 가지 이유

글 · 사진 조은형(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 2학년)



- 1 국부기념관
쑨원 동상
- 2 국립희극원
- 3 중정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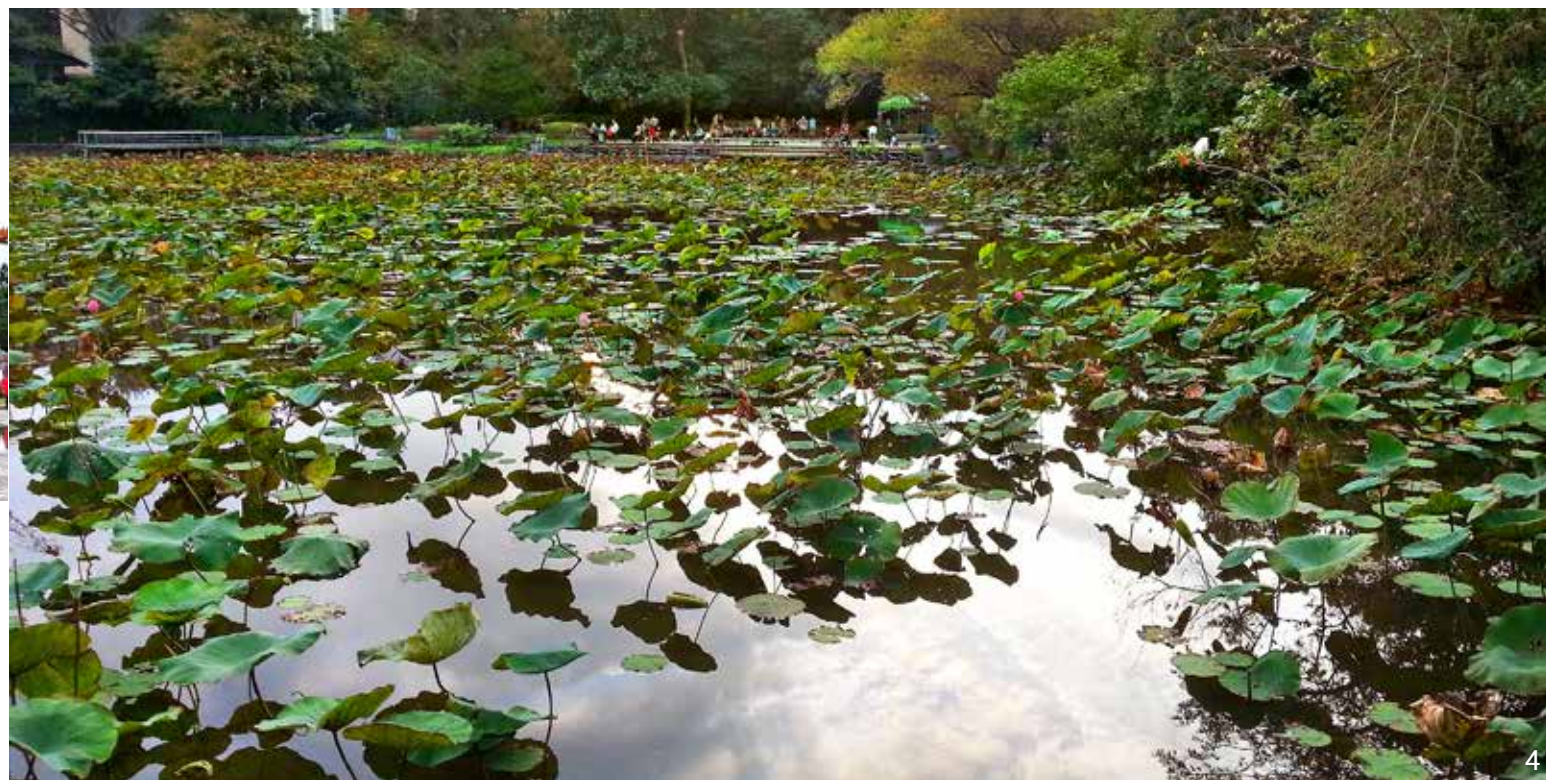


6.3m, 무게 25t의 위용을 자랑한다. 본당 가는 길에는 광장을 사이에 두고 두 건물이 마주 보고 있다. 하나는 국립 음악원, 하나는 국립 희극원이다. 이 중 희극원 지하에 기념품 가게가 있다. 대만을 상징하는 동물 캐릭터 상품과 전통적인 분위기의 엽서와 편지, 자석 등을 판다. 무게가 가볍고 아기자기한 기념품을 원한다면 이곳에서 사는 것이 좋다. 귀여운 물건이 너무 많아 득템 욕구를 억누르기 힘들다. 국부기념관은 쑨원 기념관이다. 그의 묘는 중국 난징에 있지만,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대만도 기념관을 세웠다. 이곳은 관광지일 뿐 아니라 현지인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분수 쇼를 구경하고, 한쪽에는 음악을 튼 채 춤 연습을 하는 무리도 있다. 건물 앞쪽은 대만의 최고층 마천루인 '타이베이 101'의 전체 모습을 담아 내기 좋은 '촬영 명소'다. 조금 더 타이베이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다면 타이베이 식물원과 국립 타이완대학 방문을 추천한다. 식물원은 일제 통치 시기에 식물을 연구하던 장소로 약 8만㎡ 규모를

자랑한다. 당시 실험으로 육성한 식물 종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식물 종류는 2천여 종에 이른다. 국립 타이완대학은 대만의 유력 정치인들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곳이다. 위상만큼 교정도 아름답다.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될 정도다. 정문에서 도서관으로 아자수 길이 쪽 이어지는데, 이는 대만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라고 한다. 중심부 건물의 안뜰은 고요하면서 우아한 분위기를 풍긴다. 교내에 자전거만 허용되기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거대한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 이밖에 유료지만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국립고궁 박물관이다. 입장료는 성인 350대만달러(약 1만3천650원). 장제스가 대만으로 오면서 중국의 국보급 보물을 알뜰하게 챙겨왔다고 한다. 전시물이 너무 많아 분기별로 돌아가며 전시한다.



3



4

03 POINT

편리하고 깨끗한 대중교통

타이베이의 지하철은 노선도나 역의 구조 등이 한국과 유사하다.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내부는 쾌적하다. '역내 취식 금지, 위반 시 벌금'이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있고 잘 지켜지는 분위기다. 말소리도 크게 내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철저한 듯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탑승해도 조용한 편이다. 한국의 티머니 같은 이지카드(Easy Card)가 있는데 활용도가 크다. 각종 편의점과 왓슨스, 스타벅스, 지하철 내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자전거 대여 키오스크도 이지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지하철, 버스, 기차, 페

리, 고속철도에서 쓸 수 있는 건 기본이다. 심지어 병원 결제도 된다고 한다. 가격도 원화 3천8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역마다 있는 충전기는 10개 국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당연히 한국어도 가능하다. 이지카드의 최대 장점은 '마이너스 전환'이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지하철을 탈 때 요금이 충분해도 내릴 때 요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때 이지카드를 마이너스로 찍고 나올 수 있다. 충전은 다음에 탈 때 하면 된다. 다만 공항철도로 환승할 때는 마이너스 전환이 불가능하니 개찰구 옆 창구에서 충전해야 한다.



5



- 4 타이베이 식물원 5 잘 정돈된 타이베이 거리
- 6 청나라 시대 도자기

6



1 청대에 조성해 조경예술이 돋보이는 임가화원 2 폭이 넓고 잘 정비된 도심 보행로 3 타이완국립대의 보행로 4 중정기념관에서 본 자유광장

04 POINT

소수자를 배려하는 인프라

어떤 관광지나 공공시설을 가도 장애인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은 기본, 박물관에는 점자책이 비치돼 있다. 인도는 굴곡 없이 평평하고 넓은 석판으로 만들어져 각종 바퀴가 다녀도 걸릴 것이 없다. 이 때문에 타이베이에서는 휠체어를 타고도 혼자 수월하게 이동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산모를 위한 모습도 보인다. 타이완대학을 방문하면 수유실이 화장실과 별도로 구비된 것을 볼 수 있다. 그것도 구석에 몰려 애써 찾아야 보이는 위치가 아니라, 쉽게 찾을 수 있는 행정실 옆이다. 이처럼 타이베이 곳곳에 소수자를 배려하는 섬세함이 녹아 있다.

길거리에는 강아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편의점에 강아지가 자유롭게 출입하며, 공원에서는 강아지가 알아서 산책하다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편안한 표정의 강아지들은 느긋한 풍경의 일원으로, 관광객의 마음에도 여유를 준다.

05 POINT

걷기 좋은 도시

타이베이의 인도는 오토바이 주차 공간과 자전거 주차 공간, 보행자 이동 공간을 모두 감당할 만큼 폭이 넓다. 어떤 곳은 차도와 인도의 폭이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역 주변 인도는 광장의 기능을 겸하기도 한다. 보행자 입장



에서는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자전거와 좁은 공간에서 다투지 않아도 된다. 기후가 덥고 습한 만큼 나무들이 우람하게 자라는데, 가로수도 마찬가지다. 정글에서나 보일 법한 나무들이 가로수로 서 있으니 상업지구가 아니어도 구경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장방형 구조의 일정한 건물 간격을 보면 타이베이가 계획도시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 도시는 이질감보다 편안함을 준다. 나무가 크고 많기 때문이다. 가로수의 종류가 다양한 데다 키는 건물만 하니 보행자는 숲속을 지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타이베이는 계획도시의 편리함과 아열대의 울창한 자연미가 공존하는 도시다.

타이베이 중앙역을 등지고 10분 정도 걸어가면 국립대만박물관이 나오는데, 박물관보다 오히려 주변 공원 조경이 아름답다. 공원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나간 후, 왼쪽으로 꺾어 10분 가면 중정기념관이 있다. 산책코스도 제격이다. 만약 걷기 부담스럽다면 자전거를 추천한다. 서울의 따릉이처럼 타이베이에는 유바이크가 있다.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결제는 이카드로 되니 간편하다. 그러나 핸드폰 번호 등록이 필요하니 현지 유심 구매가 선행돼야 한다. 요금은 4시간에 10대만달러(400원)도 안 된다. 도보 다음으로 저렴한 교통수단이다. 이처럼 타이베이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다. 햇빛

건물들과 치장에 크게 연연치 않는 대만인들의 모습은 관광객에게 친절한 첫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여행을 오래 할수록 내실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타이베이는 여행 중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음식으로 바로 풀어질 수 있는 곳이다. 고르게 발전한 식문화가 일행의 다양한 입맛을 모두 포용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오히려 대만은 가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한다. 한번 가지 시작하면 다시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빠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헤어 나오기 힘든 대만의 매력에 잠수하는 순간 육지는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⑦

